

‘주택고급화를 위한 예술’:

하위문화 예술공동체를 시의 경제적, 도시적 활성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Gentryfing Art”:

Using Subcultural Art Communities as a Means for a City’s Urban
and Economic Revitalisation

마타즈 얼식(류블랴나 대학 조교수)

- I. 서론: 도시 활성화 과정과 감소하는 이질성
- II. 국가적 문화정책에서 공통문화의 우세
- III. 님비즘과 류블랴나의 대안공간
 1. 공간을 위한 투쟁: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의 사례
- IV. 결론: 후기-과도기 사회에서의 하위문화 예술공동체

I. 서론: 도시 활성화 과정과 감소하는 이질성

정치적 체계의 변화와 자유시장 경제의 도입에 따라 후기-과도기(post-transition)의 상태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광범위한 공간 재구성, 리노베이션과 함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공간계획의 변화를 목격했다. 이러한 변혁과 활성화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도심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확실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표준화, 즉 도심지역에서 감소된 문화적 다양성이 재개발 과정에서 목격되었다. 특정하고 활기찬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의 세련됨에 기여하거나 혹은 “삶의 한 방식으로서의 도시성”이라 불리는 특유한 소규모의 시설들, 서비스들, 그리고 도시 환경들은 수익 위주의 서비스와 경쟁할 수 없어 점점 도심지역에서 밀려난다.

단기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이윤 그룹들은 종종 문화적 독창성과 도시의 삶의 질에 그들의 사업 전략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알지 못한다. 독창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정도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다양성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제이콥(Jane Jacobs, 1994)은 경제적 다양성을 도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본다. 세슨(Saskia

Sassen, 1992)은 ‘글로벌 도시들’—예를 들어 런던, 파리, 뉴욕, 도쿄—의 글로벌 경제 활동 개발에 있어 그들의 전략적 역할을 다각도에서 조사한다. 베이로흐(Paul Bairoch, 1998)는 도시와 그들의 다양성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플로리다(Richard Florida, 2002)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관용적인 도시가 첨단기술과 리서치와 같은 창의적인 사람이나 산업을 끌어들이는다고 주장한다. 이질성과 문화적 다양성은 도시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이유는 이질성과 다양성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개개인의 유동성의 증가와, 다수의 다양한 개인에 의한 자극의 범위 안에 머물게 하며, 차별화된 사회적 그룹에서의 변동하는 상태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¹

류블랴나(Ljubljana)도 예외는 아니다. 이곳은 슬로베니아의 수도로 국가의 주된 경제, 문화적 중심지이다. 주요한 공식적인(주에서 보조하는) 그리고 비공식적인(자급자족하는) 문화적 기관들의 대부분이 류블랴나에 위치해 있고 전 국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문화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교점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화적 기관들은 그들의 작품을 대중을 위해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들과 전문가 수준의 관객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유형이다. 특히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여 하위문화 예술공동체들에 의해 점유되는 ‘대안 공간들’은 짧고, 자극적이고,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비록 취약하지만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생산되는 급진적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지적으로 도전적인 프로그램들 때문에 그들은 종종 대중, 당국, 그리고 인접한 주민들에 의해 부적절한 것으로 이해되거나 인식된다. 그러므로 류블랴나 도심중심에 있는 이러한 대안공간들은 문화프로그램의 변화, 특정한 인구그룹의 축출과 하위문화 공동체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는 주택고급화(gentrification)의 끊임없는 압력에 시달린다. 이 주택고급화는 예술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슬로베니아의 문화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유럽의 대도시들과 비교해서 류블랴나의 예술적 공동체들은 매우 소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대안공간들은 더욱더 중요하며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현재의 문화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대안공간을 도심 밖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예술적 잠재력의 커다란 부분의 손실을 초래하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창의적 산업의 전체적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지역적으로 고유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주택고급화하려는 시도는 도시의 독창성을 저하시키고, 창의적 환경을 파괴하며, 배타적으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도시의 자극과 경험을 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한 과정들을 촉발한다. 이런 점에서 주택고급화는 도시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활력

1) Louis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City Reader*, edit. by Richard Le Gates, R. T. and Frederic Stouffer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0), pp. 98-100.

을 회복시키지만 그들이 주변부화됨에 따라 도시예술공동체와 그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통합하는 데 실패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글의 주요 의도는 류블라나의 도심지역의 공간을 경제적으로 재활성화하려는 몇몇 시도와, 도시의 도시성 혹은 도시적 삶의 방법이 얼마나 이 과정에서 소실되었는지를 묘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II. 국가적 문화정책에서 공통문화의 우세

도시환경은 거주자, 방문자, 정치인, 경제학자, 도시계획자, 사회학자, 그리고 권력이 좀 덜한 다양한 사회적 그룹을 포함하는 이해관계 그룹들 사이의 끊임없는 담론과 투쟁에 의해 생산된다. 이러한 그룹 중 몇몇은 ‘문화적 소수자’ 혹은 그들이 속해 있는 커다란 문화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공공연하거나 숨겨진) 행동양식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일련의 하위문화 예술공동체이다. 그들만의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에 하위문화는 그들을 우세한 사회 문화적 구조나 ‘공통문화(common culture)’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²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발견되는 공통문화의 의미는 “일괄적인 문화 혹은 우세한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³ 많은 저자들(윌리엄스, 1976; 파슨스, 1961; 피더스톤, 1991)은 ‘평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특정한 환경에서 어떠한 공동의 공유된 합의로 존재하는가를 탐구한다.

공통문화와 비교하여 하위문화 예술활동들, 공간들, 그리고 인공품들은 오직 자신을 우세한 문화적 기준이나 기대로부터 구별하기 원하는 소수자들에 의해서만 중요하게 인식된다. 쏘튼(Sarah Thornton)은 하위문화를 그들의 “특정한 이해관계, 운용, 삶의 방식, 그리고 일상생활 때문에 비정상적이고 변두리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사람들로 묘사한다.⁴ 이러한 도시의 변두리적이고 비표준화된 그룹은 우세문화와의 대화와 협상을 즉각적으로 촉발시킨다. 어떤 경우에는 하위문화와 우세한 사회-문화적 영역 사이의 대립이 너무 강해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낳기도 하지만, 어떤 하위문화는 도시개발을 자극하는 독창성의 중요한 요소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문화는 우세 문화의 중요한 부분에서 간과되었고 공통문화의 대표자들에 의해 공공연히 낙인 찍혔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항상 독점적이고 공간적으로 경계 지워진 주변부 공간의 극한까지 밀려났다. 이 글의 목적을 위해 그러한 장소들은 그들이 지원되는 방식에 의해 다른 예술적 생산 공간과 구별되는 하위문화 혹은 대안 예술공간으로 식별될 것이다. 다른 예술공간과 비교해서 대안 예술공간은 공적 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공(국가적) 문화 전략에 부

2) Mike Featherstone, *Consumer Culture*(London: Sage, 1991), p. 129.

3) Ibid.

4) Sarah Thornton, “General Introduction”, *The Subcultures Reader*, edit. by Ken Gelder and Sarah Thornton(London, New York: Routledge, 1997),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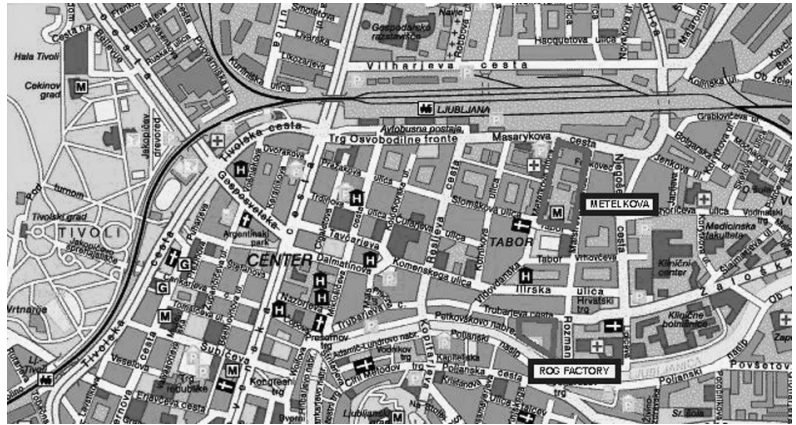
합하지 않는다. 이들 대안공간은 공공재로 광고되거나 지원되지는 않지만 패션, 디자인, 영화, 음악, 건축, 서적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고 혁신적인 생산 개발의 대부분은 하위문화나 유기된 산업지역, 기반시설 빌딩들, 차고들, 혹은 다른 형태의 불법거주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슬로베니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문화 서비스와 다른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하위)문화 서비스, 이벤트 그리고 장소 사이의 간극은 슬로베니아, 특히 대다수 거주자의 열망이 하위문화 예술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양립할 수 없는 수도 류블라나에서 뚜렷하다. 이러한 불일치는 님비(NIMBY: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 신드롬의 현상을 관찰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

III. 님비즘과 류블라나의 대안공간

강요되었건, 미묘하건, 혹은 내면화되었건 간에 특정한 주변부 그룹의 사회적 배제는 종종 객관적인 입장에서 택할 만한, 좀더 수용할 만한 논쟁으로 달리 표현되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차이는 —주변부 그룹의 일원들에게는 덜 위생적이고 덜 건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건강과 관련된 논쟁 혹은 문화를 너머 모든 인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심미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미적 논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적절’한 문화적 요소의 매우 미묘한 형태의 구별은 모두에게 개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공장소로부터 덜 권력적인 그룹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하위문화 예술 공동체가 소수민족화, 구체화 그리고 가끔은 슬럼화되는 것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 거주자들은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 물리적 경계를 세우기 위해 거리를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텅 빈 외관, 새로운 빌딩, 벽, 출입구 통제 등 다양한 물리적 고립과 테두리치기 전략들이 이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위문화와 대안공간에 반대하는 객관화와 이국적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거주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공간들은 종종 역설적으로 ‘욕망의 자유’의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실상 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비밀리에 용인되고 수용된 활동과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대중문화의 기준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에는 이러한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혼란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덜 규제된 공간이 있다. 님비 효과는 하위문화가 이러한 경계—우세한 문화가 세운 기준 혹은 표준—를 뛰어넘거나, 주변부 공간을 넘어 그곳을 재정비하고 영향을 주려 시도할 때 활성화된다. 하위문화가 그 어떤 생활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거나 시각적, 청각적, 혹은 후각적

도 1.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가 있는 류블라나 도시 중심의 지형도, Matjza Ursic의 지도, 2010



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한 넘비즘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류블라나의 대안공간의 경우에 넘비즘은 예술공동체에 대한 근접한 거주자들의 전형적인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삶의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메텔코바(Metelkova)(메텔코바 시티라고도 불린다)와 로그 팩토리(Rog Factory) 같은 공간은 류블라나 중심에 있는 대안 공간으로 그들의 특정한 서비스와 이벤트 때문에 많은 거주자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낙인 찍힌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우리는 넘비즘이 어떻게 류블라나의 공간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넘비즘은 도시의 활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덜 조밀한, 교외의, 혹은 심지어 지방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거주자들의 기준과 표준에 일치하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덜 조밀한 공간에 대한 선호는 소음레벨 규제, 도시에서 상점이나 식당, 교통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의 영업시간에 대한 강한 방침을 초래했다. 특히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는 지난 15년간 그들이 활동을 규제하려는 시도들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 중 하나이다.

공간을 위한 투쟁: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의 사례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는 류블라나에 있는 가장 큰 대안공간이다. 메텔코바는 류블라나 중심에—마사리코바(Massarykova), 마이스트로바(Maistrova), 테버(Tabor), 그리고 메텔코바 거리로 경계 지워진—있는 옛 유고슬라비아 군대 막사와 군사감옥 지역에 위치해 있다. 반면 로그 팩토리는 1991년 높은 생산비 때문에 문을 닫은 류블라나 근방에 있는 자전거 공장이었다. 특히 메텔코바 지역은 이미 1993년 9월부터 다양한 하위문화 그룹에 의해 불법점거당한 상대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반면, 로그 팩토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2006년부터 하위문화 그룹에 의해 불법점거 당했다.(도 1)

두 지역 모두 시내에 위치하여 잠재적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이러한 류블라나에 있는 하위문화 공간의 전략적 위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곳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독창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쉽게 상업, 거주, 그리고 제도적 공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들은 그들의 중요성이 당국에 의해 아직은 완전히 인식되지 못한 채 도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류블라나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동(Free-time Activities of Youths in Ljubljana)”(1999, 2004)이라는 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류블라나 청소년의 20% 이상이 그들 자신을 류블라나 대안공간은 사용자, 지지자 그리고 방문객으로 불리는 ‘대안의 장’의 일부로 인식했다. 그 연구는 또한 이러한 청소년 그룹이 딱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다른 그룹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사회활동, 교육과 예술단체, 비정부 단체에 가장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그 자료는 도시의 대안공간들이 여흥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의 중요한 공간, 나아가 청소년 대안 그룹을 위한 공간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대안 예술공간은 한편으로는 ‘제3의 공간’이고 그들의 사회화 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⁵ 하지만 류블라나 거주자의 대부분은 메텔코바와 같은 대안 공간을 도시의 일부로 보지만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곳이 제도화된 문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선호한다.(도 2)

1994년 류블라나 대학 내 공간사회학 센터에서 수행한 “류블라나에 관한 류블라나 시민들(Ljubljana Citizens about Ljubljana)”이라는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메텔코바 지역에서 어떤 건설활동을 지지하는지 질문하였다.(표 1) 대다수(69.4%)는 군대 막사가 슬로베니아 인류학 뮤지엄으로 개조되길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그곳이 ‘메텔코바 네트워크’의 필요충족을 위해 개조되는 것에는 훨씬 덜 찬성하였다.

(표 1) 당신은 도시에서 아래와 같은 건설활동을 지지합니까?

	찬성	반대	모름
슬로베니아 인류학 뮤지엄을 위한 군대막사 개조	69.4	15.7	14.9
메텔코바 네트워크를 위해 막사를 개조	44.4	33.3	22.3

자료: Kos, D. and Toš, N, “류블라나에 관한 류블라나 시민들”, 1994, FDV-CPS, 류블라나

메텔코바 네트워크는 메텔코바 거리 지역의 (하위)문화 예술활동과 도시 구조를 보존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매우 다른 프로파일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모임은 공연예술부터 음악, 시각 혹은 다른 형태의 실험적 예술 표현을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가와 예술 그룹을 포함한다. 그 모임은 다양한 문



도 2. 메텔코바 센터에 있는 빌딩, 사진: Matjaz Ursic, 2005



도 3. 메텔코바에 있는 ‘그룹키’ 콘서트 홀, 사진: Matjaz Ursic, 2005

5) 사회학자 올덴버그는 우리에게 가장 명백한 장소인 집(제1의 장소)과 직장(제2의 장소)으로부터 구분되는 사회적 환경을 규정하기 위해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3의 장소는 공동체 생활의 중심으로 대개는 무료이거나 비싸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인 창작 활동이나 모임을 가능하게 한다. 그곳은 대중에게 널리 열려있지만 그곳에서 환영이나 친숙함을 느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모이는 고정객들을 수반한다. Ray Oldenburg, *The Great Good Place*(New York: Paragon House, 1991), pp. 10-19.



도 4. 메텔코바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아트 스튜디오 중 하나, 사진: Matjaz Ursic, 2009



도 5(위), 도 6(아래). 류블라나에 있는 로그 팩토리, 사진: Matjaz Ursic, 2009

화 예술 행사를 주관하고, 그 지역의 특정한 건물을 관리하며 도시예술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지역 작가들과 협업한다. 그 네트워크는 또한 다른 많은 프로젝트들을—예를 들자면, 레드 던(Red Dawn) 페스티벌, 연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 예술 페스티벌 등—위한 기금모금을 하고 메텔코바 시 AKC(Autonomous Cultural Zone: 자치 문화 지구)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문서기록 아카이브를 운영한다. 대안 공간에 대한 응답자들의 유사한 태도는 2007년 시행한 “도시 중심의 콘텐츠, 문화, 관광, 기능, 그리고 사회적 활성화의 다양성(Diversity of Contents, Cultural, Tourist, Functional and Social Revitalisation of the City Center)”이라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나타났다.(표 2) 응답자들이 최근 대안 예술 그룹의 핵, 로그 팩토리의 개조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대다수(70.2%)는 문화적 주택고급화, 즉 로그 팩토리를 새로운 모던아트 미술관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지지했다.

(표 2) 당신은 도시에서 아래와 같은 건설활동을 지지합니까?

	찬성	반대	모름
새로운 모던아트 미술관을 의해 로그 팩토리를 개조	70.2	15.1	14.6

자료: Hočevar, M., Ursic, M. “도시 중심의 콘텐츠, 문화, 관광, 기능, 그리고 사회적 활성화의 다양성”, 2007, FDV-CPS, 류블라나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가 위치한 지역에서 실시한 “테버 문화지역의 형성(Formation of the Tabor Cultural Quarter)”(2010)이라는 조사에서, 포커스 그룹은 도시의 대안공간과 연계하여 류블라나 인구의 지각, 소망 그리고 요구를 알아내도록 분석되었다. 거주자들은 7가지의 주요 특성—나이, 성별, 거주지역, 여가활동, 교육, 고용, 문화적 생산활동—에 따라 나뉘어 졌다. 그 결과는 특정한 인구 특성에 따른 대안공간에 대한 지각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또한 대다수의 포커스 그룹에 친숙한 공통 분모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모들은 공공문화 기준에 따르는 완전한 리노베이션을 꿈꾸는 테버 지역의 활성화 과정에 대한 공통적 의견을 포함한다. 비록 그 지역이 특정한 문화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곳은 “물리적, 미학적으로 타락하고, 류블라나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이웃의 전반적인 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노베이션을 필요로 한다. 그곳은 새로운 뮤지엄, 예술상품 상점, 성공한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예술 기업,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하위문화 그룹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또 다른 문화산업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곤 한다. 류블라나에 있는 젊고, 고학력 혹은 문화생산에 고용된 포커스 그룹은 현재 존재하는 대안 공간의 중요성과 창작 잠재성을 인식하지만 대다수의 인구는 오히려 현재 메

텔코바와 로그 팩토리에 있는 문화 산업의 유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미적 부적절성과 활발한 야간 이벤트 때문이다.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 지역은 기본적인 주거 지역으로부터의 이탈로 인해 대다수의 류블라나의 거주자들에 의해 공동문화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도 3-6) 그 두 지역은 그들만의 작동, 건축, 그리고 미적 방식을 가진 '자체적으로 조직된 지역'으로 운용된다. 그 두 공동체의 멤버들은 정기적으로 임시사용자들의 '협회' 혹은 '포럼'에 모여 자치 지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한다. 그 지역의 모든 새로운 개입은 동의와 직접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메텔코바 중심 지역은 200개가 넘는 문화 생산자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도시 정부의 보조를 받는 문화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프로그램과는 차별되는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 프로그램은 슬로베니아 사회에 있는 다양한 하위문화를 반영하는데 이것들은 게이, 레즈비언 운동, 무정부주의 그룹, 이민자, YHD(Association for the Thoery and Culture of Handicap, 장애인 이론과 문화 협회) 멤버들, 핑크, 일렉트로닉 음악 협회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이벤트, 콘서트, 전시회, 공연예술, 연극, 강연회, 워크샵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는데 그 범위는 카페, 콘서트홀 그리고 클럽에서부터—예를 들면, 그롬키(Gromki), 멘자 프리 코리투(Menza pri koritu), 갈라 할라(Gala hala), 채널 제로(Channel Zero), 티파니(Tiffany), 모노켈(Monokel) 등—갤러리—예를 들면, 알카트라즈(Alkatraz) 갤러리, 미자트(Mizzart) 갤러리—, 도서관—예를 들면, 스카토바 시탈니카(Škratova čitalnica), KUD 아나히브(Anarchiv)—, 호텔—예를 들면, 셀리카(Celica) 호텔—, 그리고 다양한 자영 스튜디오, 강의실, 추가로 설립된 또 다른 사회적 공간들을 포함한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 지역이 매년 류블라나의 도심지역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화 활동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는 주변부 그룹에 의해 점유 당한 곳으로 낙인 찍힌 곳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으로부터의 다양한 수준의 억압에 노출되어 있다.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를 제도화하거나 하위문화를 제거하려는 압력은 권력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발견된다. 하위문화 예술공간이 우세한 문화에 의해 도용될 때 이것은 종종 '도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제시되고(그리고 가리워지고) 이 때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도시적 재구성을 포함하는 과정의 주요 요소 안에서 집중적인 주택 고급화가 작동하고 제공된다.(스미스^{Neil Smith}, 1996; 듀셰^{Rosalyn Deutsche}, 1996; 세슨^{Saskia Sassen}, 1996) 주택고급화는 세계적 시장과 경제의 형성과 피할 수 없이

6) Neil Smith,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London, New York: Routledge, 1996), p. 189.

연결된 현재 도시경제의 재구성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적(도시) 단계에서의 불균형적인 개발을 야기하는 우세한 자본 지역의 변동 혹은 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주킨^{Sharon Zukin}, 1988; 가디너, 1994) 1960년 이후에 주택고급화는 공적 비상업지구들—극장, 갤러리, 미술관 등을 포함한 문화공간—이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크게 착취된 반면에 개인적 거주 시설과 공적 상업활동의 재구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얻게 되었다.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 주변 지역이 새로운 거주지역, 상업빌딩 그리고 정부기관(문화부)에 의해 이미 주택고급화 되면서 그 지역은 ‘주택고급화의 선구자’, 즉 직접적으로 경제성이 있을 수 없는 지역을 거주 혹은 상업 지역으로 바꾸고, 문화적, 보헤미안 예술 지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⁶ 이해 관계에 있는 그룹들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지역을 제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하위문화에서 경제적 수도로의 점진적 변화를 보증하는 사회-문화적 주택고급화의 과정을 통한 변화라고 결론지었다.⁷ 이 결정의 결과는 하위문화가 그 과정에서 ‘주변부’ 혹은 ‘주택고급화로의 연결’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⁸ 버려진 지역의 감소 이후 하위문화는 타락한 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들의 예술적, 문화적 공헌, 기술 그리고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그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것을 도왔다. 하위문화 예술공동체는 타락된 지역의 주택고급화의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그들의 주변부적인 것은 개발자들이 그 지역의 경제적 착취의 잠재성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다음 단계로 밀려났다. 이러한 면에서 하위문화는 임시적으로 그 지역을 차지하여 주택고급화를 연결하는 자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정치적 당국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들이 그 지역의 기능을 규정할 때까지 남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문화는 ‘도시의 경영자들’(폴^{Paul}, 1975)에 의해 임시 게스트들에게 따뜻하게 환영 받는 ‘잠정적인 개발 전략’의 일부로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하위문화 도시가 그 지역을 ‘멋지고’ 매력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낮은 소득 수준 때문에 그들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 주택고급화 과정에 있어서 하위문화 예술공동체의 가장 주변부에 있는 멤버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도시의 ‘예술적’ 혹은 ‘문화적’ 지역으로 광고되는 지역에서 점점 쫓겨난다. 이 과정의 결과는 그 지역의 특정한 빌딩, 즉 새로운 뮤지엄의 설립-예를 들면, 내셔널 뮤지엄, 슬로베니아 인류학 뮤지엄, 주립 미술관(근대 미술관), 정부 문화 기관(문화유산 보호부), 관광시설 등의 제도화 혹은 리노베이션에서 찾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묘사된 주택고급화 과정은 의심할 것도 없이 도시의 관광화와 급진적 경제 발전을 도와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 주택고급화 과정은 장기적으로

7) 쏘튼은 다수에 의해 보조금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문화 수도를 ‘하위문화 수도’의 한 형태로 본다. 쏘튼에 따르면 하위문화와 전통문화 수도와의 주요 차이점은 특정한 수도의 미디어 표현의 종류와 양에 있다. 하위문화 수도를 수도의 한 유형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것의 경제적 수도로의 변형 가능성이다. 하위문화 수도는 경제 수도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문화 수도만큼 용이하지는 않다. 문화 수도와 비교해 하위문화 수도는 우세한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아방가르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유행의 선도자 그룹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만 미래에 상업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 Sarah Thomson, “General Intruction”(1997), p. 203.

8) Neil Smith,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p. 105.

9) 이 투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몇 개는, 2006년 4월 메텔코바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 철거, 메텔코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 문제(수도, 전기 공급 등), 메텔코바 입구에 있는 검은소를 포함한 증가된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가 존재하는 동안 수많은 경찰 개입 등이 있다. Bratko Bibič, *Hrup z Metelkove: tranzicije prostorov in kulture v Ljubljani*(Ljubljana: Mirovni inštitut, Inštitut za sodobne družbene in politične študije, 2003), p. 15.

는 도시의 이질성과 도시성을 감소시키는 저소득층 하위문화 그룹의 점진적 축출을 야기한다. 그 과정의 중요한 이차적 효과는 우세한 공통의 문화의 멤버들에 의해 세워진 표준에 일치하는 도시의 문화적 제안의 획일화이다. 하위문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메텔코바 지역을 커다란 뮤지엄과 관광 자산으로 바꾸려 시도하는 문화적 주택고급화의 과정은 그 지역의 커다란 부분을 제도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한 부분은 제도화를 피했고 당국과 메텔코바와 로그 팩토리를 운영하는 그룹 사이에 끊임없는 ‘공간을 위한 투쟁(struggle for space)’의 현장이다.⁹

IV. 결론: 후기과도기 사회에서의 하위문화 예술공동체

도시 지방자치제들은 다양성을 다루고 하위문화 예술공동체를 오랜 거주자들과 같이 다이내믹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는, 어렵고도 책임감 있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공공 도시공간에서 체감되는 배제와 소외의 관습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시 당국은 첫눈에는 따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다양한 하위문화를 위한 문화적으로 좀더 포괄적인 공간 정책을 주장하려 할 때 매우 중요한 도시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들을 조직하고 규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몇몇 저자들에게 의하면(제이콥, 1994; 세슨, 1994; 베이로호, 1998; 플로리다, 2003), 도시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예술, 문화 그리고 사회적 포용을 지지하는 정책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대편에서 그들의 미묘한 축출의 정책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 도시들은 사회적 차별, 경제적 주택고급화, 그리고 점진적 공간의 타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덜 유연하고 “일반적으로 후기-산업 경제의 문화적 다양성과 연관된 기회들을 자본화하는데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도시경관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투쟁할 것이다.”(레이, 2003) 체이스와 크로포드(1999)는 이상적인 도시 구성에 대한 적절한 답은 열린 컨셉, 즉 하위문화와 지역 공동체 사이의 균형과 도시 공동체를 되찾게 하는 ‘포괄적인 도시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개방적 도시성은 참여적 규제와 지역 공동체-형식적인 법률 체계, 다양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 등-밖에서 파생하는 구조적 통제를 피하려/약화시키려 노력하는 공간 계획으로 구성된다.

류블라나의 도시(공공) 환경에 있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하위)문화 예술 그룹간의 관계의 요소를 분석하는데 있어 나의 결론은 도시 공간의 주도권을 주는 과정, 즉 사실상 누가 류블라나의 다른 페이스(pace)를 지배하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우세한 문화 지역의 멤버들 사이의 배타적 논쟁

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멤버들은 모든 혼돈, 무질서 혹은 탈선의 흔적을 끊임없이 지우려 노력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는 도시계획의 (전)근대적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더 포괄적인 계획전략의 참여와 이행은 아직 완전히 수용된 선택권이 아니다. 비록 과도기 이후에 일어난 삶의 방식의 다양화는 상직적 계급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대안예술 공간의 일부를 현대도시의 조직에 포함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류블랴나의 도시 개발의 과정을 총괄하는데 있어서 공통문화 이데올로기에 의존한다. 창의적 잠재력 혹은 대안 예술공동체, 공간 그리고 활동의 하위문화 수도는 도시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도시계획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확실히 도시에서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번역: 이여운/ 감수: 김진아

투고일: 2010. 9. 23 / 심사완료일: 2010. 10. 23 / 게재확정일: 2010. 11. 23

주제어(keywords)

주택고급화(gentrification), 하위문화(subculture), 공통문화(common culture), 예술 커뮤니티(art communities),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님비(NIMBY), 이질성(heterogeneity)

참고문헌

- Bairoch, Paul. *C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Baldassar Loretta. "Italo-Australian Youth in Perth." *War, Internment and Mass Migration : The Italo-Australian Experience, 1940-1990*. Edit. by Richard, Bosworth and Romano Ugolini. Rome: Gruppo Editoriale Internazionale, 1992, pp. 207-224.
- Bibič, Bratko. *Hrup z Metelkove: tranzicije prostorov in kulture v Ljubljani*. Ljubljana: Mirovni inštitut, Inštitut za sodobne družbene in politične študije, 2003.
- Deutsche, Rosalyn. *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6.
- Featherstone, Mike. *Consumer Culture*. London: Sage, 1991.
- Florida, Richard.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2002.
- Gottdiener, Mark. *The New Urban Sociology*. St Louis: San Francisco, New York, 1994.
- Gril, Alenka, Melita P. Levpušček, Brečko Barbara and Mojca Štraus. *Free-time Activities of Ljubljana Youth: Psycho-social Analysis of Needs and Potentials for their Realisation*. Ljubljana: Pedagoški inštitut, 2004.
- Hočevcar, Marjan, Matjaž Uršič, Boštjan Bugarič and Anže Zorman. *Diversity of Contents, Cultural, Tourist, Functional and Social Revitalisation of the City Centre*. Ljubljana: Mestna občina Ljubljana, Center za prostorsko sociologijo, FDV, 2007.
- Jacobs, Jane.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St. Ives: Penguin Books Ltd, 1994.
- Kos, Drago and Niko Toš. *Ljubljana Citizens about Ljubljana*. Ljubljana: FDV-CPS, 1994.
- Oldenburg, Ray. *The Great Good Place*. New York, Paragon House, 1991.
- Pahl, E. Ray. "Managers, Technical Experts and the State." *Captive Cities: Studie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Cities and Regions*. Edit. by Michael Harloe. London, New York: Wiley, 1975 pp. 49-60.
- Sassen, Saskia. *Cities in a World Economy*.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1994.
- Smith, Neil.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6.
- Thornton, Sarah. "General introduction." *The subcultures Reader*. Edit. by Ken Gelder and Sarah Thornton.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7.
- Ule, Mirjana, Tanja Rener, Metka M. Čeplak and Blanka Tivadar. *Free-time Activities of Ljubljana Youth: Analyse of Endangered Marginal Groups*. Ljubljana: Center za socialno psihologijo—Študije mladine, FDV, 1999.

Ursic, Matjaz. *Forming of the Cultural Quarter Tabor: Analysis of Focus Groups*.
Ljubljana, Zavod Bunker, 2010.

Zukin, Sharon. *Loft Living: Culture Capital in Urban Change*. London: Radius, 1988.

Wirth, Louis.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City Reader*(Second edition). Edit.
by Richard Le Gates, R. T. and Frederic Stout.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0 pp. 97-105.

Abstract

“Gentryfing Art”: Using Subcultural Art Communities as a Means for a City’s Urban and Economic Revitalisation

Matjaz Ursic(University of Ljubljana, Assistant Professor)

The article examines the attempts made at economic revitalisation of Ljubljana’s inner city and the consequences or “collateral damage” of this process. A lot of attention is given to the wider socio-cultural context, in which artistic practices are embedded in the city, and to the Slovenian population’s perception of such practices. Artistic groups and their practices are in this sense used as part of an ‘interim development’ strategy, i.e. temporary guests(non-statutory tenants) are warmly welcomed because their (sub)cultural capital happens to cultivate the area, making it “cool” and attractive, but when the value of the area’s real estate begins to rise their low-income status does not grant them any tenant protection. Regardless of the social role they played in revitalising the city, these groups are therefore gradually ousted from neighbourhoods, which quite ironically are often advertised in the real estate market as the city’s “Bohemian” or “cultural” quarters. This makes us aware of the lack of unique alternative or informal spaces, venues for alternative art movements and practices in the cities. These issues are presented on the cases of the alternative spaces of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both located in Ljubljana’s inner city.

“Gentrifying Art”:

Using Subcultural Art Communities as a Means for a City’s Urban and Economic Revitalisation

Matjaz Ursic(University of Ljubljana, Assistant Professor)

I. Introduction: City Revitalisation Processes and Diminished Heterogeneity

Following the changes to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free market economy, many cities in post-transition countries witnessed extensive spatial restructuring and renovation, as well as rapid changes to spatial planning procedure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e majority of these renovation and revitalisation projects were conceived in order to set a clear framework for inner city economic growth. In many cases, however, a certain degree of standardisation, i.e. reduced cultural diversity in the inner-city was observed in the course of redevelopment. Unique small establishments, services, and urban settings, which in part contribute to the city’s urbanity or so-called “urbanism as a way of life” (Wirth 1938), because they provide particular, vibrant venues, cannot compete with profit oriented services and are gradually ousted from the inner city.

Economic interest groups seeking short-term profits are often unaware of the long-term effects of their business strategy on cultural heterogeneity and the city’s quality of life. The degree of heterogeneity or cultural diversity may very well be an important aspect of urban diversity, effecting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Jacobs(1994), for example, sees economic diversity as the key factor of a city’s success. Sassen(1994) studies “global cities” (e.g. London, Paris, New York, Tokyo) in a different way, examining their strategic role in the development of global economic activities. Bairoch(1998) sees cities and their diversity as the engine of economic growth. Florida(2002) argues that culturally diverse and tolerant cities are more likely to attract creative people and industries such as high technology and research. Heterogeneity and cultural diversity are vital elements of a city’s socio-economic structure because they enable social interaction between a variety of personality types, and because they allow “heightened mobility of the individual and brings him within the range of stimulation by a great number of diverse individuals and subjects him to fluctuating status in the differentiated social groups.”¹

Ljubljana is no exception. As the capital of Slovenia, it is the country’

1) Louis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City Reader*, edit. by Richard Le Gates, R. T. and Frederic Stout(New York, London: Routledge, 2000), pp. 98-100.

s leading economic and cultural centre. The great majority of important official(state subsidized) and non-official(self sustaining) cultural institutions are located in Ljubljana and function as the key nodes of the wider cultural network that covers the entire country. These cultural institutions are an important form of support to artists seeking to present their work to the interested public and expert audiences. Especially 'alternative spaces', occupied by subcultural art communities and located in the inner city, provide an important, though fragile, base of support to young, provocative, and non-established artists. Because of the very progressive, non-subsidized, and intellectually challenging art programmes produced in these spaces they are often misunderstood and perceived as improper by the general public, authorities, and adjacent residents. These alternative spaces, located in Ljubljana's inner city, are therefore under constant gentrification pressures, which may result in changed cultural programmes, ousting of specific population groups, and the dissolution of subcultural art communities. This gentrification would take away the support to the most vulnerable segment of the artistic community and affect Slovenia's entire cultural network. Compared to big European cities, Ljubljana's artistic communities are quite small and this makes the existing alternative places even more important and irreplaceable. Replacing the existing cultural programme or moving alternative spaces out of the inner city would result in a loss of critical mass of the artistic potential and have repercussions on the entire structure of creative industries relying and depending on them.

Attempts to gentrify locally unique and attractive areas impoverish the city's heterogeneity, destroy creative environments and set in motion specific processes aimed at mediating exclusively "clean, disinfected" urban impulses and experiences to the city's inhabitants and visitors. In this sense, gentrification helps the city increase consumption levels and recover some of its vibrancy, but it fails to integrate important segments of urban art communities and movements, as they tend to be marginalised. Seen this way, the main intention of the article's principal intention is to describe and analyse some of the attempts made to economically revitalise Ljubljana's inner-city spaces, and how much of the city's urbanity or urban way of life is getting lost in these processes.

II. The Predominance of Common Culture in National Cultural Management

Urban environments are produced by continuous discourse and the struggle between interest groups, including inhabitants, visitors, politicians, economists, town planners, sociologists, as well as various less empowered social groups. Some of these groups are subcultural art communities, which may be defined as 'cultural minorities' or groups of

2) Mike Featherstone, *Consumer Culture* (London: Sage, 1991), p. 129.

3) Ibid.

4) Sarah Thornton, "General Introduction", *The Subcultures Reader*, edit. by Ken Gelder and Sarah Thornton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7), p. 1.

people with sets of behaviours and beliefs—whether overt or hidden—that differentiate them from the larger culture to which they belong. Due to their specific socio-cultural background, subcultures put a lot of effort into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the predominant socio-cultural structure or “common culture.”² The notion of common culture found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assumes that “a coherent culture, or dominant ideology, plays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social order and integration.”³ Many authors (Williams, 1976; Parsons, 1961; Featherstone, 1991) explore in what form a common, shared understanding of what is considered ‘normal’ exists in specific environments.

In contrast to common culture, subcultural art practices, spaces and artefact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only by a minority that wants to differ itself from the predominant cultural norms and expectations. Thornton describes subcultures as groups of people, which are due to their “special interests, praxis, way of living and everyday activities represented as non-normative and/or marginal.”⁴ These marginal and non-standardised groups in the city immediately trigger a process of dialogisation and negotiation with the dominant culture. In some cases, the confrontation between subcultures and dominant socio-cultural spheres is so intense that it produces negative effects in society, but in others subcultures proved an important element of heterogeneity, stimulating the city’s development. Nevertheless, subcultures are often ignor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dominant culture and tend to be publicly stigmatised by the representatives of common culture. In this sense, they are often pushed into limited, marginalized spaces, which are exclusive and spatially demarcated.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such places will be identified as subcultural or alternative art spaces, differing from other spaces of artistic production by the way they are financed. In comparison to other art spaces, alternative art spaces receive no public subsidies and as such do not fit into the official (national) cultural management strategy. Although they are not advertised with nor supported by public funds, many of the most important and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s in the fields of fashion, design, film, music, architecture, books etc, have their origin in subcultures and places like abandoned industrial sites, infrastructural buildings, garages, or other forms of squatter areas. The gap between officially supported cultural services and institutions and other officially non-recognized (sub) cultural services, events, and sites is quite obvious in Slovenia, too, and especially in its capital Ljubljana, where the aspirations of the majority of inhabitants are not compatible with the lifestyles of subcultural art communities. This discrepancy can be best observed by looking at the phenomenon of NIMBY (“Not in my backyard”) syndrome.

III. Nimbyism and Ljubljana's Alternative Spaces

Whether forced, subtle or internalised, social exclusion of specific marginalized groups is readily explained by cultural differences, which are usually reformulated into more acceptable arguments, presumably adopted from an objective position. Cultural differences, for instance, are translated into health-related arguments (where members of marginalized groups are perceived as less hygienic, less healthy) or aesthetic arguments, assuming the existence of universal aesthetics applying, beyond culture, to all of humanity. These very subtle forms of discrimination of 'improper' cultural elements result in the social exclusion of less empowered groups from public spaces presumed to be open to all, and in the worst case may lead to enclavisation, reification, and sometimes ghettoisation of subcultural art communities.

On the one hand, residents use distancing to establish physical borders against culturally unacceptable areas. In this context, various strategies of physical isolation and fencing in are put into place: blank facades, new buildings, walls, gate security controls, etc.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at residents use mechanisms of objectification and exoticization against subcultures and alternative spaces. Alternative spaces are often paradoxically presented as spaces of 'desire and freedom' because they enable officially banned activities and services, which are in reality secretly tolerated and accepted by the society. Besides ordinary, mundane spaces, regulated in line with the standards of common culture, every big city has small areas of less regulated spaces, which deviate from these standards and are considered chaotic and dirty. The NIMBY effect is activated when subcultures cross these virtual borders—the standards or norms set by the dominant culture—and try to reorganise or influence spaces beyond the marginalised areas. As long as subcultures do not cause any changes to the living environment, nor interfere visually, auditorily, or olfactorily with the majority's everyday activities, nimbyism plays no role.

In the case of Ljubljana's alternative spaces, nimbyism is related to the stereotype ideas of adjacent residents about art communities, because they presume them to negatively affect their living standards. Spaces like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are examples of alternative art spaces in Ljubljana's centre stigmatised and alienated from many residents due to their specific services and events. Below, we shall describe how nimbyism has an important impact on Ljubljana's spatial development. Nimbyism not only affects the city's liveliness, but also strives to fashion urban spaces in line with the norms and standards of residents, who would prefer to live in a less populated, suburban, or even rural area. This affinity for less densely populated areas results in drastic measures to regulate noise levels and the operation of shops, restaurants, transport, and other services in the city. In particular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are among the areas, which have

been most affected by attempts at regulating their operation in the past 15 years.

The Struggle for Space: The case of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Metelkova(also called Metelkova City) and the Rog Factory are the two biggest alternative art spaces in Ljubljana. Metelkova is located in former Yugoslav army barracks and a military prison complex in the centre of Ljubljana (bordered by the Masarykova, Maistrova, Tabor, and Metelkova streets), while the Rog Factory used to be a bicycle factory near the Ljubljana, which was closed down in 1991 due to the production's high logistic costs. Especially the area of Metelkova has a relatively long tradition as it was squatted, occupied by various subcultural groups already in September 1993, while the Rog Factory is a relatively new and was squatted by subcultural groups in 2006.(fig. 1)

Both areas are located in the inner city, making them extremely attractive to potential developers and investors. The strategic location of these subcultural spaces in Ljubljana is both an advantage and a curse, because they are places where unique cultural services can be offered to a large number of people, but also places that might easily be turned into a business, residential, and state institutionalised quarter. These locations however play a very important social role in the city, a role whose importance has yet to be fully recognized by the authorities. To give an example: according to data from the "Free-time Activities of Youths in Ljubljana" surveys(1999, 2004), over 20% of Ljubljana youths identified themselves as being part of the so-called "alternative scene", i.e. users, supporters, and visitors of Ljubljana's alternative art spaces. The surveys also revealed that these youth groups were not particularly engaged in sport activities, but in contrast to other groups, they constitute the group most engaged in voluntary activities, social services, educational and art association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tc. Moreover, the data also revealed that the city's alternative art spaces did not function only as an entertainment hub, but also as an important gathering point of information, as well as venues for alternative youth groups. To these youths, alternative art spaces are in a way a "third place" and could be treated as part of their socialisation process.⁵ However, the majority of Ljubljana's residents view alternative spaces like Metelkova(fig. 2) as places that are part of the city, but too chaotic and messy and would prefer them to be turned into an institutionalised cultural area.

The public opinion survey "Ljubljana citizens about Ljubljana", conducted by the Centre for Spatial Sociology, University of Ljubljana, in 1994, asked the respondents what kind of construction they supported on the site of Metelkova(table 1). The majority(69.4%) replied that they supported the army barracks to be renovated for the needs of the Slovene Ethnographic

5) Sociologist Oldenburg uses the concept of the "third place" to define social surroundings that differ from home(the first place) and workplace(the second place) as our most obvious places. As such, they are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ocialisation process. Third places are focal points of community life, usually free or inexpensive, and easily accessible, and they enable informal, creative interactions and meetings. They are usually open to the wider public, but also involve regulars people who habitually gather there because they feel comfortable and welcome. Ray Oldenburg, *The Great Good Place*(New York: Paragon House, 1991), pp. 10-19.

Museum, but they were much less in favour of renovating them for the needs of the “Metelkova Network”.

Table 1: Do you support the following construction activities in the city?

	I support	I do not support	I do not know
Renovation of the army barracks for the needs of the Slovene Ethnographic Museum	69,4	15,7	14,9
Renovation of the barracks for the needs of the “Metelkova Network”	44,4	33,3	22,3

Source: Kos, D. and Toš, N.(1994) Ljubljana citizens about Ljubljana. FDV-CPS, Ljubljana.

The Metelkova Network is an association of people of very different profiles, who striv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urban structure and (sub) cultural art activities in the area of Metelkova Street. The association includes various artists and artistic groups, ranging from the performing arts to music, visual or other forms of experimental artistic expression; it organises various cultural and art events, manages specific buildings in the area, and collaborates with local artists in the Urban Art Projects. The network also engages in fundraising for many other projects(e.g. Red Dawns festival, annual feminist and queer arts festivals, etc.) and maintains the AKC(Autonomous Cultural Zone) Metelkova City, as well audio, video, and paper documentation archives. A similar attitude of respondents to alternative spaces was noted in the answers from the public opinion poll “Diversity of contents, cultural, tourist, functional and social revitalisation of the city centre”, conducted in 2007(table 2). When the respondents were asked about the renovation of the Rog Factory, a rather recent nucleus of alternative art groups, the majority(70.2%) supported the idea of cultural gentrification, i.e. transformation of the Rog Factory into a new museum of modern art.

Table 2: Do you support the following construction activities in the city?

	I support	I do not support	I do not know
The renovation of the Rog Factory for the needs of a new museum of modern art	70,2	15,1	14,6

Source: Hočevar, M., Ursic, M.(2007) Diversity of contents, cultural, tourist, functional and social revitalisation of the city centre. FDV-CPS, Ljubljana.

In a survey entitled “Formation of the Tabor cultural quarter”(2010), the area where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are located, focus group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perceptions, wishes, and needs of the Ljubljana population in relation to the city’s alternative spaces. The inhabitants were divided into groups according to 7 main characteristics: age, sex, location of residence, free-time activity, education, employment, involvement in cultural prod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alternative spaces, depending on the specific population characteristics. Nevertheless, the research also showed that there are common denominators, which are familiar to the majority of focus groups. These denominators include a common view of the process of revitalisation of the Tabor area, inclined towards complete renovation of the area according to common culture standards. Although the area offers specific cultural programs and services, it is perceived as 'physically and aesthetically degraded, improper for Ljubljana' and in need of renovation to improve the neighbourhood's overall appearance. This improvement would include establishing new museums, art merchandise shops, new studios for established artists, art companies, and other cultural industry businesses to partly replace or completely eliminate the role of subcultural groups at the present location. The specific focus groups of the young, highly educated or employed in cultural production in Ljubljana acknowledged the importance and creative potential of the existing alternative spaces, but the majority population had a rather negative stance towards the existing forms of cultural production at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because of their (presumed) aesthetic impropriety and lively night events.

The areas of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were perceived as not being part of the common culture (fig. 3-6) by the majority of Ljubljana residents because of their deviation from standardised housing areas. The two areas operate as 'self-organised autonomous zones' with their own functional, architectural, and aesthetic principles. The members of both communities regularly gather at the 'assembly' and 'forum' of temporary users, where they take decisions on issues concerning the autonomous zones. Every new intervention in the zones is based on consensus and direct democratic principles. The area of the Metelkova Centre comprises over 200 culture producers and activists, who organise a very diverse cultural program, different from the programmes provided by the city's government subsidized cultural institutions. The programme reflects the variety of subcultures in Slovenian society as it includes a wide range of events, concerts, exhibitions, performing arts, theatre performances, lectures, workshops related to socially marginalised groups such as gay and lesbian movements, anarchistic groups, migrants, YHD (Association for the Theory and Culture of Handicap) members, punk, electronic music associations, etc. All these programs are performed at various venues, ranging from cafés, concert halls, and clubs (e.g. Gromki, Menza pri koritu, Gala hala, Channel Zero, Tiffany, Monokel etc.), to galleries (e.g. Alkatraz Gallery, Mizzart Gallery), libraries (e.g. Škratova čitalnica, KUD Anarhiv), hostels (e.g. the Celica Hostel), and a range of self-organised studios, lecture halls, and other social spaces set up ad hoc. According to a 2007 research, the areas of Metelkova and Rog, which are not government subsidized, annually produce over 80% of all cultural activities, taking place after 11 p. m. in Ljubljana's inner city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are not only highly stigmatised as places occupied by marginal groups, but they have also been exposed to various degrees of oppression from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groups. The pressures to institutionalise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or remove the subcultures, are revealed by the ways the authorities attempt to transform the area. When subcultural art spaces are appropriated by the predominant culture, this is often presented (and veiled) with the label of “urban revitalisation”, while intensive gentrification in the principal element of a process that includes whole-scale urban restructuring of the local economy, functions and services(see Smith 1996, Deutsche 1996, Sassen 1994). Gentrification has become an inseparable part of the restructuring of contemporary urban economies, which are inevitably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global markets and economies. In this context, the process can be understood as the fluctuation or transfer of dominant capital sectors, which ultimately causes uneven development at the local (city) level(see Zukin 1988; Gottdiener 1994). In the period after 1960, gentrification has acquired a strictly negative connotation due to its emphasis on reconstructing private housing facilities and public commercial activities, while public non-commercial spaces(include cultural spaces like theatres, galleries, museums etc.) have been largely exploited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local real estate.

While the surrounding areas of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have already been gentrified by new housing units, business buildings and government institutions(e.g. the Ministry of Culture), the area has acquired the status of a “gentrification frontier” i.e. an area which cannot be made economic directly, turned into a housing or business quarter, and which also has the fame of being a cultural, Bohemian, artistic quarter.⁶ Interest groups decided that the best way to institutionalise an area of such characteristics was to renovate it through a process of socio-cultural gentrification, assuring gradual conversion from subcultural to economic capital.⁷ The consequence of this decision is that subcultures are exploited as “marginal” or “bridging gentrifiers” in the process.⁸ After the decline of an abandoned area, subcultures occupied large deteriorated spaces and helped to revitalise the area by using their artistic, cultural attributes, skills and alternative lifestyles. Subcultural art communities were a decisive factor in the first phase of gentrification of a deteriorated area, but their marginality caused them to be ousted immediately in the next phase, when developers realized the area’s potential for economic exploitation. In this sense, subcultures played the role of a bridging gentrifier, temporarily occupying the area, but indeed reserving it until the political authorities or economic interest groups defined the area’s function. Subcultures were thus used by “urban managers”(Pahl 1975) as part of an “interim development strategy”, which warmly welcomed temporary guests(non-statuary tenants), because their subcultural capital happened to cultivate the area, make it “cool” and attractive; due to their

6) Neil Smith,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London, New York: Routledge, 1996), p. 189.

7) Thornton describes the cultural capital that is not subsidized or appreciated by the majority as a form of “subcultural capital.” According to Thornton(ibi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subcultural and classical cultural capital is in the type and quantity of media representations of specific capital. What defines subcultural capital as a form of capital is its potential to transform it into economic capital. Subcultural capital is convertible into economic capital but not as easy as cultural capital. In contrast to cultural capital, subcultural capital is not so tightly connected to the dominant culture and may be perceived as being part of avant-garde, trendsetter groups, which are ahead of their time, but may be exploited commercially in the future. Sarah Thornton, “General Intruction” (1997), p. 203.

8) Neil Smith,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p. 105.

low-income status, however, they enjoyed no protection when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began to rise. In the course of the gentrification process, the most marginalized members of subcultural art communities are thus gradually driven out of the area, which ironically enough is often advertised as the city's 'artistic' or 'cultural' quarter. The results of this process can be found in the institutionalisation and renovation of specific buildings in the area, i.e. the establishment of new museums(e.g. National museum, Slovene Ethnographic Museum), state galleries(e.g. Modern Gallery), cultural government institutions(e.g. the Administra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ourist facilities(e.g. the Celica Hostel), etc.

9) Some of the most noticeable events in this struggle were the demolition of the "Preliminary school" building in Metelkova Street in April 2006, utility problems affecting the operation of Metelkova(water and electricity supply, etc.), occasional periods of increased security measures including a guard post at the entrance of Metelkova, as well as numerous police interventions during the entire period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have existed. Bratko Bibič, *Hrup z Metelkove: tranzicije prostorov in kulture v Ljubljani*(Ljubljana: Mirovni inštitut, Inštitut za sodobne družbene in politične študije, 2003), p. 15.

In the short term the described gentrification process undoubtedly helps to boost a city's touristification and fast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however, gentrification processes also cause the gradual eviction of low-income subcultural groups, reducing the city's degree of heterogeneity and urbanity in the long term. An important collateral effect of the process is the homogenisation of the city's cultural offer in line with standards set by the members of the predominant, common culture. The processes of cultural gentrification, which attempt to turn the Metelkova area into one big museum and tourism asset by exploiting its subcultural status have succeeded in institutionalising a big section of the area. However, one segment of the area had avoided institutionalisation and is the scene of a continuous "struggle for space" between the authorities and the groups managing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⁹

IV. Conclusion: Subcultural Art Communities in Post-transition Societies

City municipalities have a difficult and responsible task in developing local policies capable of managing diversity and integrating subcultural art communities with long-established residents into a dynamic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What they can do is to reduce the practices of exclusion and segregation, which are particularly felt in public city spaces.

City authorities have the means to organize and regulate many activities of daily urban life, which at first glance seem prosaic, but are in fact of crucial importance when trying to assert culturally more inclusive spatial policies for various subcultures.

According to several authors(Jacobs 1994, Sassen 1994, Bairoch 1998, Florida 2003), cities will be able to draw many benefits from policies supporting art, cultural and social inclusion in the long term. At the other end, cities not willing to modify their policies of subtle exclusion, may face social differentiation, economic gentrification, and gradual spatial deterioration. They will be less flexible and "struggle with urban landscapes and social environments that seem ill-equipped to capitalize on the opportunities commonly associated with cultural diversity in a post-industrial

economy”(Ray, 2003). Chase and Crawford(1999) mention that an adequate reply to ideological urban structuring can be found in the concept of open, i.e. “inclusive urbanism”, which enables to restore the urban community and establish balance between the subcultures and the local community. Open urbanism consists of participatory regulation and spatial planning that tries to avoid/soften structural constraints deriving from outside the local community(from the formal legal system, various economic or political interest groups, etc.).

Analysing some of the elemen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sub)cultural art groups in the urban (public) environment of Ljubljana, my conclusion is that the processes of empowerment in the urban space, i.e. the question who actually dominates Ljubljana’s different paces, are still confined to an exclusive debate between members of the dominant cultural circles. These members continue to try and eliminate all traces of chaos, disorder, or deviation and their ideas are associated with a (pre)modern understanding of urban planning. In this context, participation and implementation of a more inclusive planning strategy is not yet a completely accepted option. Although the diversification of lifestyles that occurred after the period of transition impacted the transformation of symbolic hierarchies and helped to include part of the alternative art spaces into the fabric of the present-day city, a majority still relies on ideologies of common culture to direct the process of Ljubljana’s urban development. The creative potential or subcultural capital of alternative art communities, spaces and practices are not fully recognized as important elements of city urbanity and tend to be excluded from urban planning processes. In the long run, this will certainly affect the overall quality of life in the city.